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㉕ 슬로시티-청산도·장흥·담양

"편안하다, 그냥 이곳에서 살고 싶다"

완도 청산도-산·바다·하늘도 푸른 '신선의 땅'
장흥 유치면-물과 숲 어우러진 '유기농 마을'
담양 창평면-3,600m 돌담길, 과거로의 여행

칫타슬로(cittaslow=slow city)국제연명 실사단이 지난해 9월 완도 청산도를 방문했을 때, 로베르토 안젤릇치 회장의 첫 마디는 "편안하다. 그냥 이 곳에서 살고 싶다"였다. 장흥 유치, 담양을 방문했을 때도 안젤릇치 회장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고유의 문화와 먹거리를 지키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상향으로 본 것이다.

한 박자 쉬어가는 삶,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 여름철 슬로시티에서의 한때는 삶을 되돌아보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완도 청산도**=청산도는 한때 '선산(仙山)' '선원(仙源)'으로 불렸을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다. 사시사철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른 신선의 땅이다. 완도항에서 배로 45분 거리인 이곳은 면소재지인 도청리에서 남쪽으로 1㎞정도 떨어진 당리가 여행의 중심지다. 돌담길, 초가 등 예스러운 풍경을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의 주요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 윤석호 감독의 사계절 연작 드라마 중 '봄의 왈츠' 세트장도 이 곳에 있다. 돌담길에서 바라보는 당리마을 전경, 도락포 쪽의 저녁노을은 길손의 발길을 오래도록 잡아두곤 한다.

당리에서 화랑포까지 2.5㎞ 길을 걷노라면 바다를 향해 우쭉 머리를 세운 범바위를 만난다. 청산도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이다. 화랑포에선 스킨 스쿠버를 체험할 수 있다. 도청리에 가면 물질하는 해녀들이 반긴다.

끝없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신흥리 해수욕장, 200년이 넘는 해송 800여 그루가 병풍처럼 둘러선 지리해수욕장도 뺄 수 없는 여름 휴가지이다.

구들장논, 다랭이논, 당리 풍어제, 시신을 이엉 등으로 덮어두는 '초분(草墳)' 풍습도 볼 수 있다.

호텔이나 콘도는 없고 인심 후한 민박이 많은데, 3만원에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청산면사무소(061-550-5608), 청산농협(552-9388)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장흥 유치·장평**= 장평면 우산리 '우산 슬로월드 지구'와 유치면 반월리, 운월리, 봉덕리 등은 물과 숲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이자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작물 생산이 부각되어 슬로시티로 선정됐다.

장흥군의 북쪽에 위치한 이들 두 곳은 사면이 산악 지형으로 대상지 면적의 85%가 임야이다.

'장수풍뎅이 마을'로 알려진 유치면 반월리는 장흥댐 최상류에 위치한 곳으로 40가구 89명이 옹기종기 모여 산다. 마을과 산 속에는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설치돼 있는데 버려지던 표고버섯 자목을 활용해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면서부터 장수풍뎅이 마을로 알려지게 됐다. 4년 전부터는 매년 7월 말에 마을축제를 열고, 장수풍뎅이 생태 관찰과 표고버섯 따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발 400m의 천봉산 중턱에 자리한 유치면 운월리 한농마을은 86가구 200여 명이 살고 있는 '유기농 공동체'다.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던 정병서 씨가 유기농법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다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적으로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곳에 1994년 처음 정착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달걀은 전국 최초로 유기 축산 인증을 받았고, 상추를 비롯한 케일, 고구마 등 유기 인증 채소 30여 종을 재배하고 있다.

또 유치면 봉덕리의 가지산 전통마을은 청국장으로 유명하다. 친환경 농법으로 콩을 생산해 청국장 환과 메주, 서리태 가루 등을 만들고 있다.

장평면 우산· 장항·병동 등 3개 마을을 포함하는 '우산 슬로월드 지구'는 지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과 유기농 채소가 특징이다.

비자나무 숲과 자생 녹차 밭이 있는 가지산과 송광사의 말사로 우리나라에 선종이 가장 먼저 들어와 정착한 보림사, 고려시대 문신 문익점과 조선 중기 의병장 문위세를 기리는 서원인 강성서원 등도 볼거리다. 문의 유치면사무소(061-860-0608), 장평면사무소(061-860-0607)

◇**담양 창평면**=담양군 창평면 삼지천마을은 16세기 초에 형성된 전통 마을이다. 들판 한가운데 자리한 삼지천마을의 고풍스러운 전통가옥들과 총연장 3천600m의 낮은 돌담길은 과거로 가는 마법의 길이다. 2006년 지정된 문화재청 지정문화재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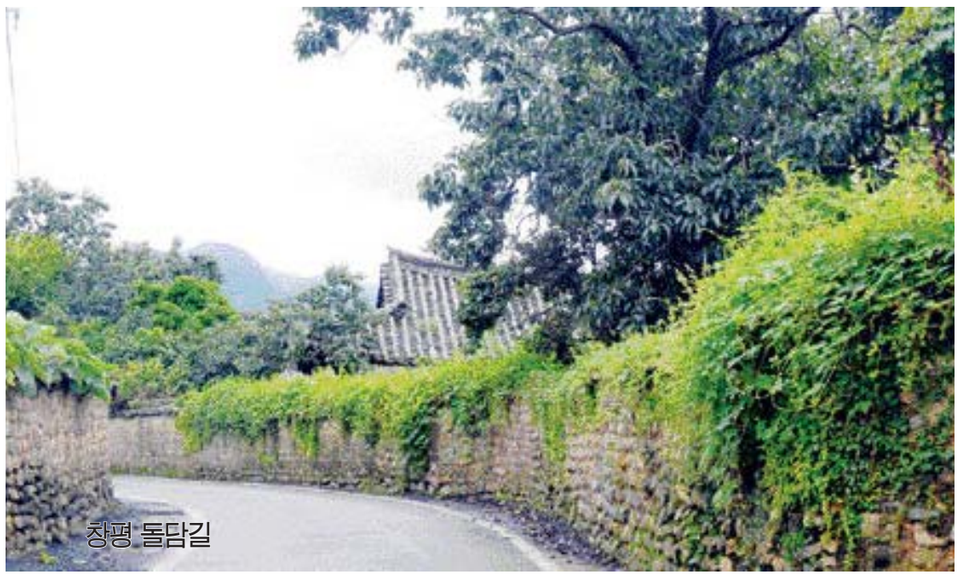
이곳은 창평 고씨의 집성촌으로 대대로 후손들이 살아와 전통가옥 13채가 보존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고재선 가옥'과 '고재환 가옥'은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없지만 전통가옥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삼지천마을은 창평엿과 한과, 된장, 고추장 등 전통 음식이 유명하다. 인근에는 한국대나무박물관(061-381-4111)과 죽림욕장인 죽녹원(380-3244)이 있으며, 조선시대의 대표적 정원인 소쇄원과 식영정 등의 관광지가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담양 죽녹원

청산도 마을 어귀


창평 돌담길

광주시, 385개 기관·단체와 온라인 문화관광 네트워크

광주시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내 각급 기관·단체와 함께 '온라인 문화관광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민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광주의 문화관광 정보를 각급 기관·단체 홈페이지 방문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 구축 대상은 지역내 공공기관 38개, 교육기관 5개, 대학교 19개, 종합병원 41개, 사회단체 911개, 기업체 91개 등 모두 385개 기관·단체의 홈페이지.

이들 홈페이지에 '광주의 문화관광'이라는 배너를 설치해 이를 클릭할 경우 시가 제공하는 문화관광정보 홈페이지(www.gwangju.go.kr/htm/tour)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곳에서 제공되는 문화관광 정보는 광주의 문화재 등 찾고 싶은 명소와 주요 행사 및 축제, 문화예술행사, 민주성지 광주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이다. 시는 향후 민간단체와 해외 자매결연 도시, 우호협력 도시 등으로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알짜산업인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담양서 자연문화해설 경연 전국 해설사 700여명 참여

전국 자연문화해설 시나리오 경연대회가 7일 담양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됐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아름다운 남도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자연·문화관광해설사 700여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순천, 담양 등 전남 주요 관광지 현장방문, 관광해설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전남관광 구석구석 해설 시나리오 공모전' 순으로 진행되며, 전남도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다.

행사 첫날인 7일엔 전국에서 참여한 자연·문화관광 해설인들이 천혜의 자연습지인 순천만을 답사했다.

8일엔 전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깊이있는 해설을 하는데 필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자연&문화유산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와 '주제가 있는 관광해설 우수사례발표회'가 있게된다.

또한 템플스테이, 섬문화, 지역축제, 재래시장, 슬로시티, 장수벨트, 세계문화유산, 한스타일, 공연, 드라마와 영화촬영지 등 전남의 구석구석을 소재로 해설시나리오 공모전을 실시, 27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주동식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각 지역의 자연·문화관광해설인들이 남도의 관광지를 입소문 내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입심 좋은 전국 분야별 해설인들의 소개로 남도의 산과 바다가 관광객으로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